

**DFM** 라우팅 업체인 픽시스 테크놀로지는 팹리스 ASIC 업체인 오픈-실리콘의 공동 설립자이면서 사장 겸 CEO인 나비드 웨르위니 박사가 자사의 기술 고문위원회에 합류했다고 발표했다.

픽시스의 나옴 자파(Naeem Zafar) 사장 겸 CEO는 “나비드는 물리적 설계, ASIC 및 물리적 설계 자동화에 대한 저서를 저술했다”면서 “우리는 물리적 설계 구현 기간 동안 생산과 제조력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차세대 라우터를 개발하고 있기 때문에, 기술 엔지니어링에서 그의 폭넓은 경험은 우리의 전문 기술과 기존의 이사회 및 TAB에 상당한 가치를 부가할 것”이라고 말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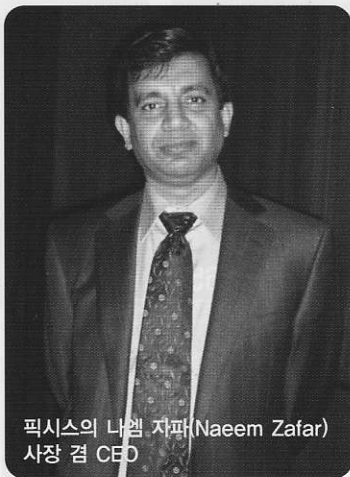
교(Western Michigan University)에서 교수로도 활동하고 있다. 여기서 그의 연구는 VLSI 물리 설계 자동화, 조합론(combi-natorics), 그래픽 알고리즘을 중점으로 다루고 있다.

웨르위니 박사는 물리 설계에 대한 주요한 교재의 저자이기도 한다. 이 교재는 전세계 주요 대학교에서 광범위하게 사용되고 있다. 또한, 그는 물리 설계 자동화 및 ASIC과 관련된 다양한 저서 및 기고문의 저자로 혹은 공동 저자로 활동해오고 있으며 전세계에서 열리고 있는 국제적인 기술 컨퍼런스에서 스피커로 활동하고 있다.

웨르위니 박사는 네브라스카 링컨 대학교

## Open Silicon, 기술 고문위원회, 물리적 설계 자동화, 설계, 리소그래피 및 생산 분야의 전문 인력 포진

글 | 이공홀 기자(leekh@semiconnet.co.kr)



픽시스의 나옴 자파(Naeem Zafar)  
사장 겸 CEO

웨르위니 박사는 기술 엔지니어링과 종합 경영에서 19년 이상의 경험을 쌓아왔다. 오픈-실리콘을 설립하기 전, 웨르위니 박사는 인텔 마이크로일렉트로닉스 서비스의 창업자 겸 총괄 매니저로 활동했다. 이 곳에서 그는 설계 효율성과 시장 출시를 향상시키는 우수한 ASIC 기법 사용을 증진시키기 위해 노력했다. 웨르위니 박사는 인텔 마이크로프로세서 설계 기법과 주도적인 다양한 마이크로

프로세서에서 사용 중인 환경을 공동으로 설계했다. 웨르위니 박사는 여러 통신 및 컴퓨터 업체들을 위해 컨설턴트로서 활동하고 있으며, 주로 시장출시 시점을 향상시킬 수 있는 ASIC 설계 플로우 및 셀 라이브러리 설계에 주력하고 있다. 그는 웨스턴 미시건 대학

(Nebraska -Lincoln)에서 박사학위를 받았다.

웨르위니 박사는 “픽시스가 제공하고 있는 창시적인 기술은 설계자와 파우드리 업체들이 직면하고 있는 DFM/DFY 문제에 대해 우수한 솔루션을 제공한다. 픽시스 기술 자문위원회에 합류하게 되어 매우 기쁘다”라고 말했다.

기술고문위원회(TAB)는 제조력 주도 설계 분야의 컨설턴트로 지난해 모토로라에서 은퇴할 때까지 설계에서 제조 솔루션 분야의 이사를 역임한 워렌 그로브만(Warren Grobman) 박사, 실리콘 웹 그룹(Silicon Web Group)의 제너럴 파트너이자 텍사스 대학교의 겸직교수인 마크 맥더모트(Mark McDermott), 오스틴의 텍사스 디자인 오토메이션 랩 대학교의 조교수이자 이사인 데이비드 Z.Pan, 반도체 및 EDA 업체의 컨설턴트로 반도체 공정 및 설계 고려사항의 집적도를 전문으로 다루는 리코 라도익(Radojic) 컨설턴트가 활동하고 있다. **SN**